

FTA타결·미국산 수입 재개 여파 ... 쇠고기값 끝모를 추락

전남 축산업계 '憂...憂...'

수입산 7.6% 하락 95년이후 최대  
한우 3.2%·돼지고기값 7.3% ↓

올해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영향으로 국산, 수입 가릴 것 없이 쇠고기값이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전남지역 등 전국의 축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수입 쇠고기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이 같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95년 4·4분기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한우 및 육우 등 국산 쇠고기 가격 역시 3.2% 하락, 지난 98년 4·4분기(-9.0%)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국산과 수입 쇠고기 가격이 모두 떨어진 것은 지난 1·4분기와 2·4분기에 이어 3분기째다. 1·4분기 국산과 수입산은 각각 0.3%, 2.3% 떨어졌고, 2·4분기에다 나란히 2.0%, 3.7%씩 하락한 바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역시 쇠고기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다. 3·4분기 돼지고기 값은 작년 3·4분기보다 7.3% 떨어져 96년 2·4분기 이후(-9.5%) 11년여만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 2·4분기 8년만에 처음 나타난 수입·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3가지 주요 육류의 동반하락 현상도 2분기째 이어졌다.

이 같은 소·돼지고기의 전반적 하락세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실제 시장가격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공사의 농수산물유통정보서비스(KAMIS)에 따르면 한우 불고기값(500g·1등급)의 10월 평균가격은 1만7천843원으로 작년의 2만1천138원보다 15.6% 하락했다.

한우 등심 역시 1년동안 3만4천145원에서 3만1천856원으로 6.7% 떨어졌다.

호주산 등심과 갈비, 불고기도 각각 3.0%(2만1천606원→2만958원), 20.5%(1만2천968원→1만308원), 16.9%(1만711원→8천450원)씩 싸졌다. 돼지고기 삼겹살(중품 500g)은 7천595원에서 7천183원으로 5.42% 하락했다.

나주시 농민 H씨(56)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소식으로 소와 돼지고기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사료값 상승, 산지가격 하락에 이어 소비자가격도 곤두박질쳐 축산농가 붕괴가 현실화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통계청 물가통계에서 축산물 가격조사는 38개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일반정육점 등에서 매달 3차례 이뤄진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이달중순부터 병원 외출·외박 관리 강화

이달 중순부터 가장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고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 및 외박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만일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가장 교통사고 환자를 자체적으로 규제해 왔지만 일부 소형병원은 수익을 올리려고 가장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장 환자로 인한 불필요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억3천만원 페라리 '피오라노'

페라리 공식 수입업체 ㈜FMK가 6일 서울 신사동 페라리 전시장에서 12기통 엔진을 장착한 신차 '599 GTB 피오라노'를 선보이고 있다. 620마력의 피오라노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3.7초, 최고 시속은 330km에 달한다. 국내 판매 가격은 4억3천만원대이다.

/연합뉴스

카드 포인트 '선할인'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소비자에 할부 고지 의무 강화

앞으로 전자제품 구입 때 신용카드로 50만~70만원을 먼저 할인 받고 이후 3년간 포인트로 상환하는 식의 포인트 연계 할부 거래가 어려워진다.

부채를 마치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카드사의 재무건전성에 악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최근 카드사에 발송했다.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란 전자제품·휴대전화·내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먼저 할인 받고 나중에 해당 카드 소비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로 할인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일례로 200만원짜리 LCD TV를 구입하면서 70만원을 선할인 받은 후 3년 동안 한 달에 2만원씩 해당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이 카드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의 포인트가 발생하려면 약 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한달 적립 포인트가 2만원이 안되면 모자란 부분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선할인 금액은 향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채무인데 고객들은 이런 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원은 이에 따라 향후 카드사 검사 때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의 심사기준, 한도관리, 소비자보호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는 다른 카드상품과 별도로 구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연합뉴스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급증

실제 총급여 1억원 넘는 고액 연봉자  
2005년 5만3천명...10년새 7.5배 늘어

지난 1996년 이후 10년만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임금근로자의 수가 7.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표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같은 기간 2.5배 이상 증가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8천만원 초과자는 지난 96년 7천명 수준이었으나 2005년 5만3천명으로 7.5배나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경우 비과세소득에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총급여액은 1억원을 훌

쩍 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연 급여 1억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는 가족 수에 따라 7천만~7천900만원 수준이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과표 4천만~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도 96년 5만명이었다가 2005년 26만1천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10년간의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추이는 중산·고소득 붐급생물의 수가 빠르게 늘어 사회 전반의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표 1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층으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자는

96년 532만2천명이었으나 2005년 338만7천명 수준으로 2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각종 공제가 늘면서 96년 695만8천명에서 2005년 610만7천명으로 12.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고·저소득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납세자수가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는 96년 3만5천명에서 2005년 9만명으로 2.57배가 증가했으며 4천만~8천만원 구간은 6만9천명에서 13만명으로 1.9배가 늘었다.

1천만~4천만원 구간도 32만6천명에서 51만9천명으로 59.2% 증가했고 1천만원 이하도 78만6천명이던 것이 121만명으로 53.9% 증가했다.

전체 종합소득자 납세인원은 96년 121만6천명에서 2005년 194만8천명으로 60.1% 늘었다.

/연합뉴스

10가구 중 3가구 "노후대비 없다"

■삼성경제연 조사  
희망정년 65.4세  
기대수명 78.1세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족한 소득 탓에 노후에 대비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컸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78.1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65.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희망정년은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나 20대와 30대는 각각 평균 59.6세와 62.1세에 정년을 맞기를 희망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64.7세와 68.4세를 희망했다.

한편 현재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중인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69.30.5%는 노후대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63.3%는 소득이 부족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4%는 소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가구와 아직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각각 9.8%와 9.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국내 가구의 30.5%는 노후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구의 기대수명은 78.1세, 희망정년은 65.4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2007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로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30.5%는 노후대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63.3%는 소득이 부족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4%는 소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구의 78.9%는 현재의 노후대비가 은퇴후의 생활에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54.7%는 월 평균 소득의 10% 미만인 국민연금 등 제외된 노후대비에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2명 중 1명 "약값 비싸다"

■약과사회포럼 조사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약값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인 약과사회포럼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9~10월2일 사이 전국 30~69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5%가 현재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약값에 대해 매우 비싸거나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증환자 외래진료비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의 약값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9.6%가 '비싸졌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오리진일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인 30.4%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87.2%)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구직자 4명 중 1명 "외모 때문에 면접 탈락"

구직자의 4명 중 1명 가량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기업체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구직자의 무료 성형을 지원 하는 '커리어 취업뷰티관'을 방문한 구직자 1천300명을 상대로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27.4%가 '그렇다'고 답했다.

내년 GDP 5% 성장...코스피 2400 육박

증권사·경제연 전망

내년에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하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예프엔가이드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국내 14개 증권사와 5개 경제연구소, 2개 해외기관의 경제 및 증시 전망을 집계한 결과, 올해와 내년의 한국 GDP 성장률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는 각각 4.8%, 5.0%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의 올해 고점과 내년 고점의 평균치는 각각 2,123, 2,398이었다.

내년 코스피지수의 고점은 현대증권이 2,588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이 2,300로 가장 낮았

■10월 말 기준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컨센서스 현황

Table with columns: 대성지표, 단위, 2006, 2007, 2008. Rows include GDP, 건설투자, 소비투자, 소비자물가, 코스피 전망, 환율(달러/원).

다. 경제연구소와 증권사들이 제시한 올해 월당 환율의 최저치는 평균 896원이었다. 내년에는 월당 환율이 889~939원 사이에 움직여 평균 환율대는 911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채 5년물의 연간 평균 금리는 올해 5.2%에서 내년 5.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동원 김재철 회장 日 정부 훈장 수상

동원그룹은 김재철 회장이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2007년 추계 외국인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 긴밀화에 대한 기여로 일본 정부의 훈장 '욱일중광장(旭日重光章)'을 받는다고 동원그룹은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훈장 및 훈기 전달식은 오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